

심사결정문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2024년도 제19회 수상자로 JR서일본노동조합 (이하 JR서노)전 중앙집행위원장 야스다 마사시 (安田昌史)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야스다 마사시님은 JR서일본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대 활동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노동운동, 진보운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 활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한 연대 활동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각개 약진하며 생존하기에 급급한 진보 운동에 경종을 울리며, 소외된 약자들의 굳건한 연대와 국경을 넘어서는 국제적 연대만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죽비'였습니다.

그들이 펼친 국제적 연대활동은 약자에 대한 공감과 전 세계의 모든 부정의에 맞서는 투철한 정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로서 일본 내 철도 사고자 위령 활동을 선도하였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 위령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대구지하철노조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양국의 위령제에 함께 참여하며 이운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연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위령제 참여를 계기로 하여 세월호 유족들을 JR 후쿠치야마 탈선 사고 위령 활동에 초대하고 동일본 대지진 유족과의 교류를 주선하는 등 '위로 공동체'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 운동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제60회 4.3 제주도 희생자 위령제부터 매년 40여 명의 조합원들을 인솔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 31주기 5.18 위령식부터는 매년 3박 4일 일정으로 5.18 조합원 연수를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5.18 35주기에는 오사카에서 800여 명이 참여한 35주년 기념집회를 성사시켜 저항과 연대의 오월 정신을 함양하고 오월 정신의 세계화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일본 내 '들불 모임'을 결성하여 일본에서 오월 정신과 들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일상적인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전범국임을 분명히 하고 반전 평화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금지 운동, 미 공군기지 반대 투쟁,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일본 평화헌법 9조 사수 운동을 선도하였고, 2013년에는 일본 요나구니섬 주민들이 주최하고 JR서노가 지원한 구부라항 부근에서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행사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초청해 한일간의 위안부 피해자 위령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과정은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이해를 넘어 인권.평등.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가로서 충분한 모범이 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2024년도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전년도와 달리 특별하게 회원 총회에서 추천. 토론의 과정을 거쳐 JR서노 야스다 마사시님이 보여준 국경을 넘는 폭넓은 연대 활동이 들불 열사의 삶과 정신 그리고 2024년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승화시키고, 마침내 고통을 극복할 원동력을 확보해가는 그의 활동은 위기에 직면한 2024년의 대한민국의 노동 운동, 진보 운동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2024년도 제19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고 부정의에 맞서는 모범적 연대 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이어 나가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년 5월 25일

들불열사기념사업회 회원 일동